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가이드답안
(오전)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1) 주제어를 찾고 2) 요약하며 3) 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및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6]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마녀사냥을 선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분야의 글 읽기’ 부분에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의 사례로 제시한 「우리 안의 마녀사냥」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분야’ 부분에서 ‘다양한 매체 자료 읽기’의 사례로 제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발췌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여론의 선동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의 분야’ 부분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는 고발한다』에서 발췌한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이상형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지학사, 121~122쪽.
- [나] : 한철우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비상교육, 199~200쪽.
- [다] : 니콜라스 할라스 저; 황의방 역(2015), 『나는 고발한다』, 한길사, 95~96쪽.
- 박영록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123~127쪽 관련.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 (5점)
 - 제시된 지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는 문항이다.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선동’이다.

◆ 채점 기준

-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인 ‘선동’을 찾아내면 5점, 아닐 경우 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5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주제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유럽 사회에서 일어났던 ‘마녀사냥’을 권력이 이용한 선동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글이다. 근대 국가는 일반 민중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마녀사냥은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이와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파시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권력은 때로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 채점 기준

-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가]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요약하는 문항이다.
- [나]는 칼레의 시민이 영국에 항복하는 과정에서 외스타슈가 시민을 선동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면모를 보여 주는 글이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칼레에서 지체 높은 여섯 명의 목숨을 요구하자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외스타슈는 당당한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자고 선동한다.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서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10점)

-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하여 이 지문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는 반역자로 낙인찍힌 프랑스의 육군 참모부 소속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의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동을 보여 주는 글이다. 프랑스의 언론은 드레퓌스 사건을 제멋대로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반역 행위의 책임까지 드레퓌스에게 돌리기도 하였다. 가톨릭계 신문인 『라 크루아』지는 드레퓌스를 프랑스 국민을 파멸시키고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려고 획책해 온 국제적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로 지목하였으며, 여러 신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하였다.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가]의 주제어 ‘선동’을 이용하여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선동이다. 권력은 때로 일부러 위험 세력을 조작해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근대 국가는 일반 민중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위험 세력을 조작했는데, 이것은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파시스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2번) 예시 답안

[나]에서 외스타슈는 영국에 항복하는 과정에서 칼레의 시민에게 당당한 죽음의 희생을 선동하였다.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외스타슈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항복 조건에 맞서 당당한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칼레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자고 선동하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다]는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동을 보여 주는 글이다. 프랑스의 언론은 드레퓌스 사건을 제멋대로 과장해서 보도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반역 행위의 책임까지 드레퓌스에게 돌리며 그를 반역자이자 국제적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로 몰아갔다. 이 글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밝히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선동하려고만 하는 언론의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에 드러난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통일성과 응집성 있는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관련되고, 글을 쓰는 능력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6-01] “정의를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나],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3) 사회와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4) 인권 보장과 헌법’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71쪽.
- [나] : 곽용석, 「미국, 흑인-백인 실업률 격차 급격 확대 …… 고용 위기 신호?」, 『초이스 경제』, 2023. 7. 11.
 - 변순용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98~99쪽 관련.
 김영하, 「미국 흑인, AI로 직업 잃을 처지」, 『시타임스』, 2019. 10. 9.
 - 변순용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98~99쪽 관련.
- [다] : 변순용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과서, 99쪽.
- [라] : 장현구, 「미국 흑인 초등학생만 대학 견학 …… 백인 역차별 논란」, 『연합뉴스』, 2015. 4. 20.
 - 박병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교육, 168~171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10점)

- [가]는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므로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 [나]는 미국에서 흑인들의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의 2배 수준이며, 특히 자동화와 시로 인해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 사회의 결과적 불평등을 보여 준다.

◆ 채점 기준

- [가]의 관점에서 [나]의 결과적 불평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0점)

- [다]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역차별 여부에 관하여 설명한 글이다.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그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하여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은 보상 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니며 보상하는 사람도 차별의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수자 우대 정책은 약자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다수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 [라]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학 견학을 추진한 사례를 포함하여 백인에 비하여 흑인을 우대하여 백인 역차별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백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흑인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역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 백인 역차별이 문제가 된 사례로 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민권 운동 동영상을 보여 준 일, 오로지 흑인 학생만을 위한 행사를 열었던 일이 있다.

◆ 채점 기준

- [다]의 두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능력과 업적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 불공정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다양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나]에 의하면 흑인 실업률이 백인 실업률의 2배 수준이며, 자동화와 AI로 인해 흑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가]의 관점에서 [나]는 불평등, 불공정한 현상이다.

[라]에서는 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학 견학, 민권 수업, 인권 행사를 진행하였다. [다]의 소수자 우대 정책에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견학, 수업, 행사는 정당하다.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그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하여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하며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견학, 수업, 행사는 부당하다. 보상 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고, 보상하는 사람들도 과거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으며, 소수자 우대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다수 집단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영역’의 성취기준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 ‘(3) 국가와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3-04]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5) 경제생활과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5-01] “현대 경제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및 ‘(5) 경제생활과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5-02]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와 『고등학교 경제』 교과 ‘(5) 경제생활과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5-03] “자산 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을 파악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및 ‘(2) 시장과 경제활동’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자료 출처

- [가]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26쪽.
 한국은행(2023), <https://www.bok.or.kr/>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26쪽 관련.
 윤상인, 「한은 기준 금리 1→1.25% …… 22개월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 『중앙일보』, 2022. 1. 14.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26쪽 관련.
- [나] : 한국거래소(2023), <https://www.krx.co.kr/>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87쪽 관련.

- 한국부동산원(2023), <https://www.reb.or.kr/>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79쪽 관련.
- [다] : 금융투자협회(2023), <https://www.kofia.or.kr/>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79쪽 관련.
 한국은행(2023), <https://www.bok.or.kr/>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79쪽 관련.
 한국은행(2023), <https://www.bok.or.kr/>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79쪽 관련.
- [라] : 임홍경, 「[금융 교육 10살부터 ②] 가정 형편 좋을수록 더 시킨다 ……」, 『조선일보』, 2020. 1. 7.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85~190쪽 관련.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96쪽.
 임해원, 「한국은 정말 ‘돈’에 미친 나라일까?」, 『뉴스로드』, 2021. 11. 25.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5쪽 관련.
 손해용, 「일에 치이고, 공기까지 최악 …… 韓 행복 지수, 37개국 중 35위」, 『중앙일보』, 2021. 5. 19.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8~29쪽 관련.
 김종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87쪽.
- [마] : 이승주, 「[청년, 영끌 투자 관철을까 ②] 내집 포기하고 주식 ‘빚투’에 올인했는데」, 『뉴시스』, 2021. 6. 26.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87쪽 관련.
 나경연·송태화, 「욕하면서 본다? ‘카푸어’ 열풍 속 뒤틀린 대중 심리」, 『국민일보』, 2021. 12. 25.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25쪽 관련.
 윤진섭, 「부동산 규제 도리어 좋았다? …… 누를수록 집값 튀어 올랐다.」, 『SBS Biz』, 2023. 7. 11.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25~127쪽 관련.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 (20점)

- [가], [나], [다]를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과열에 따라 과도하게 증가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나]와 [다]는 늘어난 통화량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었고, 많은 사람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였다. 그 결과 최근 가계 대출 잔액은 1,861조 원에 이르렀고, 이자율이 오름에 따라 대출 받은 사람의 대출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 (20점)

- [라]를 활용하여 [마]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를 평가함

◆ 채점 기준

- [다]의 원인이 되는 [마]가 금융 이해력이 낮은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하고 부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실패임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라]에 제시된 사항을 이용하여 개인은 금융 이해력을 높여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내에서 투자하여야 하고, 지나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해야 하며, 정부는 시장 질서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리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당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했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과열에 대한 대응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했음을 나타낸다. [나]는 늘어난 통화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에 흘러들어 해당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다]는 많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거나,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했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가계 대출 잔액이 증가하였고, 최근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 받은 사람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다]의 원인이 되는 [마]는 금융 이해력이 낮은 개인의 무분별한 투자, 물질적인 풍요를 과시하고 부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은 금융 이해력을 높여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하며 무리한 대출과 과소비를 지양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 질서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